

# [위피백과]

수능국어\_이십세기

: 1994~2000 기출 선별

〈3주차 문제편〉

위피\_심프 ver.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6. 수능

고대의 조각품을 올바르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 감상의 고전적인 척도가 필요하다. 동서양의 고대 조각품들은 대부분 그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 이상을 실현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고대의 조각품을 바람직하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그 조각이 상징하는 그 무엇에 대한 숭배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것은 단순히 돌로 만들어진 물질의 의미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고대의 조각품을 볼 때, 미적 정서가 직감적으로 촉발(觸發)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적 정서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게 된 것은 훨씬 후대에 와서야 가능해진 것이다. 한마디로 고대의 조각품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신성함', '거룩함' 등과 같은 초월적인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다.

19세기 초 지중해 연안의 한 동굴에서 발견된 '미로의 비너스' 상이 좋은 사례가 된다. 발견 당시 이것은 굴 안의 북쪽 벽 앞에서 있었고, 그 앞에는 제단으로 보이는 큰 돌 주위에 토기(土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이로 미루어 그리스 시대의 인체조각상은 동양의 불상처럼 신전에 모셔졌으며, 당시 사람들의 종교적 숭배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현대의 조각품을 감상하는 방법으로 그리스의 조각품을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조각상에 나타난 그들의 인체 탐구 정신은 지극히 사실적(事實的)이면서도 이상화(理想化)된 것이었다. 이런 정신은 서구 미술의 근본 정신이 되었다. 동양에서는 자연물이 표현의 주된 대상이었던 데 반하여, 서구에서는 자연물보다는 주로 인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런데 서구인들은 그 많은 소재 중에서 하필이면 인간만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을까? 그것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그들의 독특한 사상에서 비롯된다. 즉, 인간의 몸에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황금비례가 있는데, 이 비례가 만물을 재는 기준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인체를 탐구하는 것은 그 속에 신이 인간을 창조한 모든 비밀이 숨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은 인간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서구의 미술가들이 누드를 평생의 소재로 삼게 한 불후(不朽)의 사상인 것이다.

한편, 동양의 화가들은 유구한 세월 동안 산·물·나무·동물·곤충·꽃 등과 같은 자연의 물상을 단골 소재로 삼았다. 동양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일을 사생(寫生)이라고 일컬어왔다. 사생은 산수나 화조(花鳥)처럼 자연을 그리는 일을 말한다. 이것은 자연물을 있는 그대로 모방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그들이 그리고자 하는 목적은 단순히 자연물을 있는 그대로 모방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그들이 그리고자 하는 목적은 단순히 자연물의 외형을 재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대상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서 움직이는가를 탐구하고 또 이러한 자연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탐구했던 것이다.

동양 미술이 자연의 탐구를 통하여 인간의 본성을 확인하려 했던 것이다. 이렇듯 서구와 동양의 미술은 얼핏 보아 서로 대립적인 것 같지만, 궁극적인 정신의 지향점은 일치한다. ㉡ 자연은 인간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자연이 곧 인간이고 인간이 또한 자연이기 때문이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동양의 화가들은 자연물의 움직임을 재현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 ② 고대의 조각품은 미적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 ③ 동서양의 미술은 표현 방법과 표현 대상이 동일하다.
- ④ 서구의 미술가들은 인체 탐구를 통하여 신이 인체 탐구를 통하여 신이 인간을 창조한 비밀을 찾으려 했다.
- ⑤ 서구의 미술가들은 인간의 욕망을 승화시키기 위해 누구를 평생의 소재로 삼았다.

2.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 ① 서구 미술은 동양 미술의 정신을 본받아야 한다.
- ② 미술은 인체를 탐구하려는 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 ③ 동서양의 고대 미술은 모두 종교적 속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④ 고대 미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문화특성을 알아야 한다.
- ⑤ 동서양의 미술은 모두 표현 대상에 숨겨져 있는 본질을 탐구하고 있다.

3. ㉠의 문맥적 의미를 바탕으로 대상을 평가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이 초상화는 생전의 근엄하신 할아버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어.
- ② 신라인의 얼을 생각하며 석굴암 본존불을 보니, 그 자비로움이 나를 숙연케 해.
- ③ 이 그림 속의 물방울은 마치 아침 이슬이 햇살에 반사되어 영롱하게 빛나는 것 같아.
- ④ 경복궁 경회루의 우아한 곡선미는 우리 조상의 예술적 감각이 대단히 뛰어났음을 알 수 있게 해.
- ⑤ 미로의 비너스는 두 팔이 잘려 나갔지만, 그리스인의 세련되고 섬세한 솜씨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4. 다음 중 ㉠의 의미를 적절하게 드러낸 것은?

- ① 순례자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듯한 석간수는 얼마나 달고 시원한지 연거푸 몇 표주박을 들이키니, 상쾌한 기운이 더위를 씻어 준다.
- ② 봄철이라면 벚꽃이 대단하다. 그것도 겹벚 꽃이다. 벚꽃이 제아 무리 맵시를 자랑해도 개심사 종루(鐘樓) 한 쪽에 서 있는 늠름한늠은 매화의 기품을 벚꽃은 가히 넘보지 못한다.
- ③ 빛의 약동! 색의 환희! 만개한 복숭아 꽃, 오얏꽃, 그 새로이 파릇파릇 움트는 에메랄드의 싹들! 섬세하고 운택하게 자라나는 아름다운 꽃잎들. 회화(繪畵)는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 ④ 벌거벗은 나무 끝을 사정없이 흔들어대며 지나가는 매서운 겨울바람과 눈 덮인 벌판을 차갑게 비쳐 주는 겨울 달빛 사이로 기러기와 청둥오리가 하늘을 비껴 줄지어 날아가면 겨울은 깊어 같다.
- ⑤ 신록의 노래가 금시에라도 우렁차게 터져 나와, 산과 들을 흔들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이러한 자연에 결눈을 파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6. 수능

승상이 길동의 모를 불러 가까이 앉으라 하여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 왈,

“내 너를 잊지 못함은 길동이 나간 후에 소식이 둔절하여 사생 존망을 모르니 내 마음에 이같이 사념이 간절하거든 네 마음이야 더욱 측량하라 길동이 녹녹한 인물이 아니라. ㉠ 만일 살아 있으면 너를 저버릴바 없으리라. 부디 몸을 가볍게 버리지 말고 안보하여 좋게 지내라. 내 황천에 돌아가도 눈을 감지 못하리로다.”

하시고 인하여 별세하시니, 부인이 기절하시고, 좌우 다 망극하여 곡성이 진동하더라. 길현이 슬픈 마음을 억제치 못하여 눈물이 비오듯하며, 부인을 붙들여 위로하여 진정하신 후에 초상등절(初喪等節)을 예로써 극진히 차릴새, 길동의 모는 더욱 망극 애통하니 그 정상이 잔잉(殘仍)하여 차마 보지 못하더라. 인하여 졸곡(卒哭) 후에 ㉡ 명산지(名山之地)를 구하여 안장하려 하고 각처에 사람을 놓아 여러 지관을 데리고 산지를 사방으로 구하되 마땅한 곳이 없어 근심하더니, 이 때에 ㉢ 길동이 서강에 다다라배에서 내려 승상택에 이르러 바로 승상영위(靈位) 전에 들어가 복지통곡하더니, 상인이 자세히 보니 이 곧 길동이라. ㉣ 대성통곡 후에 길동을 데리고 바로 내당에 들어가 부인에게 고하니, 부인이 대경대회하여 길동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왈,

“네 어려서 집을 떠나 이제야 돌아오니 석사(昔事)를 생각하면 도리어 참괴한지라. 그러하나 네 그 사이 삼사 년은 종적을 아주 끊어 어디로 갔었더냐? 대감이 임종 시 말씀이 이러이러 하시고 너를 잊지 못하고 돌아가시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리오?”

하시고, 그 어미를 부르시니, ㉤ 그 모 길동 온 줄 알고 급히 들어와 모자 서로 대하니 흐르는 눈물을 서로 금치 못하더라. 길동이 부인과 모친을 위로한 후 그 형장(兄丈)을 대하여 왈,

“소제 그간은 산중에 은거하여 지리를 잠심(潛心)하여 대감의 ㉥ 말년유택(末年幽宅)을 정한 곳이 있사옵더니, 알지 못하겠구나! 이미 소점(所占)이 있사옵니까?”

㉦ 그 형이 이 말을 듣고 더욱 반겨 아직 정하지 못한 말을 설화(說話)하고, 제인이 모여 밤이 새도록 정회를 베풀고, 이튿날 길동이 그 형을 모시고 한 곳에 이르러 가리켜 왈,

“이 곳이 소제의 정한 땅이로소이다.”

길현이 사면을 살펴보니, 중중한 석각이 험악하고, ㉧ 누누(壘壘)한 고총(古塚)이 수 없는지라. 심내에 불합(不合)하여 왈,

“소제의 높은 소견은 알지 못하되 내 마음은 이곳에 모실 생각이 없으니 다른 땅을 점복하라.”

길동이 거짓 탄식 왈,

“이 땅이 비록 이러하오나 누대 장상지지(將相之地)어늘 형장의 소견이 불합하오니 개탄이로다!”

하고, 도끼를 들어 수 척을 파하니, 오색 기운이 일며 청학한 쌍이 날아가는지라. 그 형이 이 거동을 보고 크게 뉘우쳐 길동의 손을 잡고 왈,

“우형의 소견 ㉨ 절언대지(絶言大地)를 잃었으니 어찌 애답지 아니 하리오? 바라나니 다른 땅은 없느냐?”

길동이 가로되,

“이에서 한 곳이 있어도 길이 수천 리라 그것을 염려하나이다.”

길현이 왈,

“이제 수만 리라도 부모의 ㉩ 백골이 평안할 곳이 있으면 그 원근을 취사치 아니하리라.”

한대, ㉪ 길동이 함께 집에 돌아와 그 말씀을 설화하니, 부인이 못내 애달와 하시더라. 날을 가리어 대감 영위를 모시고 섬 중으로 향할새, 길동이 부인에게 여쭙오되,

“소자 돌아와 모자지정을 다 펴지 못하옵고, 또 대감 영위에 조석공양이 난처하오니 어미와 함께 이번 길에 함께하오면 좋을까 하나이다.”

부인이 허락하시거늘, 직일 발행하여 서강에 다다르니 제군이 대선 한 척을 대후하였는지라.

- 「홍길동전」 완판본 -

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길동은 생모를 모시고 섬으로 떠난다.
- ② 길동의 생모는 첩의 신분을 벗어나 있다.
- ③ 길동의 아버지는 길동을 그리워한다.
- ④ 길동은 부친이 별세한 후 집에 돌아온다.
- ⑤ 길동은 아버지의 영위를 모셔가기 위해 형을 속인다.

6. ㉠~㉨ 중 의미하는 바가 다른 하나는?

- ① ㉠ 명산지(名山之地)                      ② ㉡ 말년유택(末年幽宅)
- ③ ㉢ 누누(壘壘)한 고총(古塚)            ④ ㉣ 절언대지(絶言大地)
- ⑤ ㉤ 백골이 평안할 곳

7. ㉠~㉥ 중 ㉢의 밑줄 친 부분이 암시하는 바가 실현된 것은?

- ① ㉠    ② ㉡    ③ ㉢
- ④ ㉣    ⑤ ㉥

8. 다음 중 ㉢의 밑줄 친 부분이 암시하는 바가 실현된 것은?

- ① 아바님 가노이다 어마님 도히 겨오  
나라히 부리시니 이 몸을 잊것니다  
내년의 이 시절 오나도 기드리 지 마르쇼셔
- ② 어저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드냐  
이시라 헛더 면 가랴마는 제 구투여  
보내고 그리는 정 은 나도 몰라 헛노라
- ③ 뉘흔 길 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뜯은 만코 만코 하고 하고  
어디셔 외기러기는 울 고 울고 가느니
- ④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은 님 여회옵고  
내 막음 둘 디 업서 냇궤에 안즈이다.  
져 물도 내 안 곳도 다 우리 밤길 네놓다.
- ⑤ 심산(深山)의 밤이 드니 북풍이 더욱 차다  
옥루고처(玉樓高處)에도 이 바람 부는게오  
긴 밤의 치우신가 북두(北斗) 비겨 바리로라.

[9~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96. 수능

키케로가 이미 갈파했듯이, ㉠ 철학자의 책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리석음뿐이다. 확실히 철학자들은 상식을 거부하고 온갖 지혜를 추구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철학적 비상(飛翔)은 희박한 공기의 상승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은 항상 진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철학은 언제나 근거를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이는 것은 철학이 과학적 방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질서와 자유, 삶과 죽음 등과 같은 어렵고 위험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탐구 분야든지 정확한 공식화가 가능한 지식을 산출하면 곧 과학이라고 일컫는다. 과학은 철학에서 시작하여 기술(技術)로 끝나고, 또한 과학은 가설의 ㉡ 싹에서 발원(發源)하여 성취의 ㉢ 바다로 흘러간다. 철학은 미지의 것 또는 부정확한 것에 대한 가설적 해석이다. ㉣ 철학이 진리 세계를 탐구하는 최전선이고 과학이 점령 지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식과 기술로 건설된 후방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다. 철학은 어쩔 줄 몰라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철학은 승리의 열매를 과학에게 넘겨주고 나서, ㉤ 거룩한 불만을 간직한 채 아직도 탐구되지 않은 불확실한 지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하기로 하자. 과학은 분석적 기술(記述)이고 철학은 종합적 해석이다. 과학은 전체를 부분으로, 모호한 것을 확실한 것으로 분해하려고 한다. 과학은 사물의 가치나 이상적 가능성을 탐구하지 않으며, 사물의 전체적인 궁극적 의미를 묻지 않는다. 과학은 사물의 현상과 작용을 밝히는 데 만족하고, 현존하는 사물의 성질과 과정에만 시야를 국한한다. 과학자는 천재의 창조적 진동뿐만 아니라 벼룩의 다리에도 흥미를 느낀다.

그러나 철학자는 사실의 기술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철학자는 사실과 경험의 관계를 확정함으로써 그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려고 한다. 철학자는 사물을 종합적으로 해석한다. 호기심 많은 과학자가 우주라는 거대한 시계를 분해해 놓으면, 철학자는 그 시계를 이전보다 더 훌륭하게 조립하려고 애쓴다. 과정을 관찰하고 수단을 고안해 내는 지식이 과학이라면, 여러 가지 목적을 비판하고 조절하는 지혜가 철학이다. 사실이 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철학이 없는 과학, 지혜가 없는 지식은 우리들을 절망으로부터 구해내지 못한다. 과학은 인간에게 지식을 주지만, 철학은 인간에게 지혜를 제공한다.

9. 윗글의 내용으로 바탕으로 '과학'과 '철학'의 대비적 속성을 짝지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과학       | 철학     |
|----------|--------|
| ① 지식(知識) | 지혜(智慧) |
| ② 분석(分析) | 종합(綜合) |
| ③ 사실(事實) | 가치(價値) |
| ④ 기술(記述) | 해석(解釋) |
| ⑤ 현존(現存) | 현상(現像) |

10. ㉠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직접적인 논거로 적절한 것은?

- ① 철학자들의 삶은 무의미하다.
- ② 철학자들은 지혜와 상식을 혼동한다.
- ③ 철학자들은 지식과 기술을 추구한다.
- ④ 철학자들은 상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⑤ 철학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어리석게 표현한다.

11. ㉣에서 유추할 수 있는 비유적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철학이 전깃줄이고 과학이 그 전깃줄을 따라 흐르는 전류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추는 전등불과 같다.
- ② 철학이 철로를 따라 운행하는 기관차이고 과학이 객차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객차의 좌석에 편안하게 앉아 있는 여행객과 같다.
- ③ 철학이 거친 바다를 헤쳐 나가는 배이고 과학이 그 배를 운항하는 항해사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승객과 같다.
- ④ 철학이 자갈밭을 걸어가는 두 다리이고 과학이 앞길을 살피는 두 눈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두 다리에 실려 가는 몸통과 같다.
- ⑤ 철학이 광맥을 찾아 나가는 탐사대이고 과학이 그 광물을 채굴하는 광부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광물을 실생활에 이용하는 소비자과 같다.

12. 밑줄 친 ㉤의 내포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현실에 대한 종교적 성찰
- ② 철학 자체에 대한 회의
- ③ 진리에 대한 본원적 갈증
- ④ 자기를 포기한 자조적 독백
- ⑤ 자아 탐구의 본능적 욕구

13. 윗글의 문맥상 '㉡ 싹 : ㉢ 바다'의 관계가 가장 유사한 것은?

- |           |             |
|-----------|-------------|
| ① 싹 : 열매  | ② 빛 : 그림자   |
| ③ 비 : 구름  | ④ 휘발유 : 자동차 |
| ⑤ 바위 : 이끼 |             |



17.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 때 촬영할만한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외가에서 도움을 받을 때 중구 영감이 불편해 하는 모습
- ② 정윤이 대구 의전을 다닐 때 김 약국이 도움을 주는 장면
- ③ 중구 영감이 자개장을 시장에 가지고 나가 흥정하는 모습
- ④ 중구 영감이 일방에서 성실하고 꼼꼼하게 소목일을 하는 모습
- ⑤ 중구 영감이 소목일을 배우기로 작정하고 목수를 찾아가는 장면

18. 윗글에 대한 감상을 심화·발전시킨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중구 영감과 정국주 마누라 사이의 갈등이 빈부 격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의 경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더 연구해 보겠다.”
- ② “나는 한실택을 통해 여성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낡은 관습으로 인해 여성이 받는 불이익은 없을까 하는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해 보겠다.”
- ③ “나는 특히 대화 부분을 읽으면서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다. 문학 작품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효과가 무엇일까 하는 점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겠다.”
- ④ “나는 중구 영감이 지닌 전문성과 자부심에 주목했다.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는가 하는 점을 더 생각해 보겠다.”
- ⑤ “나는 선비의 자손들이 소목일을 남 몰래 했다는 부분에 주목했다. 신분 질서가 붕괴되고 체면이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 방식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확인해 보겠다.”

## 빠른 정답

[1~4] 1996. 수능				
1	2	3	4	
④	⑤	②	⑤	

[5~8] 1996. 수능				
5	6	7	8	
②	③	③	③	

[9~13] 1996. 수능					
9	10	11	12	13	
⑤	④	⑤	③	①	

[14~18] 1997. 수능					
14	15	16	17	18	
②	④	②	③	①	